4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러시아]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US천달러)

구분	2012년 2월 당월		2012년 1-2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식품 및 농업원료 (직물원료제외)	3,106,909.5	4.1%	5,439,281.6	3.4%
HS코드 01류-24류				

자료: 러시아 관세청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톤, US백만달러)

HS코드	품목	2011년 1-2월		2012년 1-2월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금액
0302-0304	어류(신선·냉동)	120.8	290.1	128.8	294.2	1.4%

자료: 러시아 관세청(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

< 2012년 1-2월 러시아 수산물 수출입동향 >

(단위: 천톤, US천달러)

HS 코드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가격($/1톤)	물량	금액	가격($/1톤)
03류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	378,809.9	-	-	349,628.3	-
0301	활어	0.0	10.0	…	0.0	538.1	…
0302	신선·냉장어류	0.2	329.2	1,646.0	25.4	117,470.5	4,624.8
0303	냉동어류	265.8	308,948.5	1,162.3	86.0	128,735.4	1,496.9
0304	어류피레트	6.3	25,860.9	4,104.9	16.3	46,740.7	2,867.5
0305	건조, 염장어류	0.7	4,230.0	6,042.9	1.0	4,527.0	4,527.0
0306	갑각류	4.4	34,404.6	7,819.2	9.0	41,124.6	4,569.4
0307	연체동물	1.7	5,007.1	2,945.4	3.0	10,424.1	3,474.7
0308	수생무척추동물	0.0	19.6	…	0.0	67.9	…
16류	어류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어류제품	-	-	-	-	-	-
1604	조제·저장처리어류	2.3	10,131.0	4,404.8	10.8	21,081.4	1,952.0
1605	조제·저장처리 갑각류, 연체동물	0.3	848.4	2,828.0	1.3	5,675.0	4,365.4

자료: 연방통계청

주: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지수 합산하지 않은 잠정치(러시아 관세청 자료근거)

○ 냉동어류

- 1-2월간 냉동어류(HS코드 0303)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86.7천 톤으로 집계되며, 수출량은 35.8% 증가한 267.0천 톤을 기록함. 어획량과 수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냉동어류 수입도 다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 면에서는 청어(33% 감소, 21천 톤), 고등어(7.5천 톤) 수입이 줄어들었고, 블루화이팅(13.5% 증가, 12.6천 톤), 킬카(37% 증가, 10.7천 톤), 열빙어(40.3% 증가, 7.3천 톤)의 수입이 증가함

- 외국수역과 국제협약수역 및 개방국제해역에서 미국대구(saithe), 블루화이팅, 고등어, 아틀란틱호스마크렐, 대서양붉은볼락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이 어종들 수입이 현저히 줄어듦

○ 어류피레트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16천 톤으로 집계됨. 수입 감소원인은 노르웨이산 청어피레트와 중국산 틸라피아피레트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함.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노르웨이, 베트남, 중국임

- 1-2월간 노르웨이는 대러 청어피레트 수출(6.5천 톤)이 16.7% 감소되어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한 7.9천의 피레트를 러시아에 수출함. 베트남은 팡가시우스피레트 수출(1.4천 톤)이 12.9% 증가하면서 대러 피레트 공급 또한 4.5% 증가한 2.3천 톤을 기록함. 중국은 틸라피아피레트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1.3% 감소한 1.9천 톤의 피레트를 러시아에 공급함

- 또한 명태피레트 수입이 57.1% 감소함. 이와 같이 피레트 수입이 현저히 급감한 것과 더불어 러시아산 피레트 생산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피레트 부족현상은 관찰되지 않음

○ 갑각류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6.9% 감소한 6/5천 톤으로 집계됨. 수입 감소원인은 러시아산 새우 어획량 증가와 캐나다산, 덴마크산, 중국산 새우 수입 감소에 기인함.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캐나다(점유율 43%), 덴마크(24.6%), 중국(18.4%)이며, 캐나다산 17.2% 감소, 덴마크산 11.1% 감소, 중국산 65.8% 감소함

- 1-2월간 러시아 자국 냉동갑각류 생산 성장률은 7.3%를 보임. 3월 27일 기준, 러시아 어민들은 새우 3.4천 톤을 어획했고 이는 전년대비 13.3%(0.4천 톤) 증가함

○ 연체동물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2.2% 감소한 1.9천 톤으로 집계됨. 수입 감소원인은 중국산 해산물칵테일과 오징어제품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함.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중국(점유율 45%), 페루(17%), 독일(14%)이며, 중국산 54% 감소, 페루산 11.3% 감소함

- 연체동물 수입구조에서 오징어제품과 해산물칵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6%, 문어제품 10.2%, 홍합 5.6%, 가리비과 3.2%임

○ 염건조 및 훈제 어류제품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5.7% 감소한 772톤으로 집계됨. 어류조제품 수입 감소원인은 중국산 염건조 어류제품과 염건조 피레트 수입이 줄어들고 동남아산 안초비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함.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중국(점유율 46.1%), 베트남(34.5%), 태국(17.7%)임

- 이 기간 동안 러시아산 염장청어 생산 3.3% 증가, 건어 7.5% 증가, 냉훈제어류 8.8%, 염장어류(청어 제외) 14.8%, 향신료 가미한 염수장 어류 생산 23.7% 증가함

○ 어류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통조림)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8.9톤으로 집계됨. 수입 증가원인은 사르디넬라, 킬카, 스프랫(sprat)으로 만든 조제품 및 통조림(전년동기대비 34.2% 증가, 5.1천 톤)와 참치통조림(327톤), 명태제품(240톤), 토마토소스로 가미한 망둥이 통조림의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와 동시에 유럽뱀장어제품(618톤)과 생선묵제품(376톤)의 수입이 감소함

-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라트비아(점유율 39%), 우크라이나(27%), 중국(20%)임. 라트비아산 12.9% 증가(3.5천 톤), 우크라이나산 50% 증가(2.4천 톤), 중국산 14.3% 감소(1.8천 톤)

- 어류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 수입구조에서 사르디넬라, 킬카, 스프랫(sprat)으로 만든 제품이 우세한 비중을 점유함(57%)

- 어류통조림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어류통조림 생산도 성장세를 보임. 1-2월간 오일에 담은 어류통조림 생산 11.3% 증가, 천연어류통조림 생산 33.8% 증가함

○ 해산물 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통조림)

- 1-2월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1.04천 톤으로 집계됨. 수입 증가원인은 홍합제품 수입량 증가 때문임(668톤). 이와 동시에 오징어제품(18.3% 감소, 143톤)과 새우제품(59% 감소, 131톤)의 수입은 감소함

- 1-2월간 대러 수출국 Top3은 칠레(점유율 44.5%), 중국(31.3%), 스페인(8.8%)임. 칠레산 4.7배

증가(465톤), 스페인산 2.2배 증가(92톤)하였고, 중국산 22.2% 감소함(327톤)

- 해산물 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 수입구조에서 홍합제품의 점유율(64%)이 가장 높음

□ 소비 동향

○ 러시아에서 어류 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캄차트카(34.4kg)

- 2010년 기준, 러시아 가정에서 1인당 평균 어류 및 해산물 지출비용은 214.5루블/1달이며, 그중에서 도시에서는 229.3루블/1달, 농촌에서는 174.2루블/1달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됨

- 지역구조별로 연간 1인당 어류 및 어류제품 소비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앙연방관구의 경우 소비량이 높은 지역은 툴라 주(25.7kg), 벨고로드 주(25.1kg), 트베리 주(24.8kg)이며, 북서연방관구의 경우 카렐리야공화국(26.7kg), 무르만스크 주(26.6kg), 아르한겔스크 주(25.3kg), 남부연방관구의 경우 아스트라한 주(33.6kg), 크라스노다르 크라이(27.6kg), 로스토프 주(22kg), 북카프카스연방관구의 경우 스타브로폴 크라이(19.3kg), 체첸공화국(22kg), 볼가연방관구의 경우 펜자 주(25.4kg), 사라토프 주(24.1kg), 바쉬키리공화국(23kg), 우랄연방관구의 경우 야말로-네네츠자치구(30.8kg), 첼랴빈스크 주(22.8kg), 시베리아연방관구의 경우 옴스크 주(23.7kg), 노보시비르스크 주(23.2kg), 극동연방관구의 경우 캄차트카 크라이(34.4kg), 연해주(33.7kg), 하바롭스크 크라이(32.9kg)임

- 2005-2010년간 러시아 주민 1인당 평균소득에서 어류 및 어류제품 구매능력은 62% 증가함(132.5kg→214.6kg)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일부 어종 수입관세율 변동으로 일부 어류가격 인하될 수도

- 러시아는 신선 열빙어와 미국대구(saithe)의 무관세수입체제를 연장하고 해덕과 대구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5%까지 인하할 예정임. 이 조치들은 4월 25일 대외무역보호조치 및 관세규제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됨

- 이와 동시에 위원회는 청어 수입관세율을 제로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함. 이는 명태어업자연맹 측에서 청어 수입관세율을 인하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자고 정부 부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이 수용된 것임. 관세율 제로화 제안이 수용되었을 경우 극동지역 청어조업 종사자들이 받게 될 타격이 크기 때문임

(자료: 어민신문)

○ 러시아수산청, 대 한국 게 수출용 원산지증명서 승인기관으로 지정

- 2012년 4월 16일자 결정문 №297에 의거하여, 한국으로 반입되는 산, 신선, 냉동의 게 및 게로 만든 제품의 원산지의 합법성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승인 집행기관으로 러시아수산청이 지정됨. 이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범주 내에서 한국 측에서 새로운 게 수출규정을 알려온 것에 기인함

- 신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으로 게 및 게로 만든 제품을 반입시킬 계획인 러시아어민들(법인, 개인사업가)은 러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후 한국 항구에서 이를 제출해야 함. 이 서류는 산, 신선, 냉동 게 혹은 게로 만든 제품의 어획이 합법적임을 증명해주는 것임

- 수산청 평가에 따르면, 현재 50천 톤에 이르는 값진 수생생물이 불법적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러시아수역에서 불법적인 게 어획은 연간 800백만 달러로 추정됨

(자료: 피쉬리테일, 어민신문, 인테르팍스)

○ 러시아, 노르웨이산 신선어류 한시적 수입제한

- 최근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이 실시한 노르웨이산 신선어류 검사결과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노르웨이 1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노르웨이산 신선어류에 대한 한시적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함. 금지대상어류는 노르웨이산의 모든 붉은살 신선어류(연어, 무지개송어)임. 러시아로 들어오는 노르웨이산 어류는 양식어종임. 냉동어류는 금지대상에 속하지 않음
- 2011년에 러시아로 수입된 연어는 113천 톤이며 그중에서 노르웨이산이 약 100천 톤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무지개송어의 경우 20천 톤 수입되었고 그중 18천 톤이 노르웨이산임. 노르웨이산 어류의 상당수는 냉장어류임. 2011년 러시아 수산업에서 연어와 무지개송어 생산규모는 18천 톤에 불과함
- 2008년에도 동식물검역국은 노르웨이산 연어에서 카드뮴을 발견한 바 있음. 이번 수입제한조치 시행으로 노르웨이산 신선어류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 측은 이를 대비하여 칠레산 연어 수입 증대 가능성을 칠레 측과 논의 중임

(자료: 가제따, 동식물검역국, 폰탄카, 피쉬뉴스 등)

○ 2011년 러시아 어류·해산물 통조림·조제품시장 0.5% 성장

- 러시아 어류·해산물 통조림·조제품시장은 2009년에 12.2% 하락한 후 2010년에 들어서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함. 시장규모가 5.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진 못했음. 2011년에는 시장규모 성장률 둔화 경향을 보여 0.5% 성장에 그쳤고 물량 기준 325천 톤으로 집계됨
- 자국 생산자들의 제품은 전체 러시아시장규모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 어류·해산물 통조림·조제품시장에서 수입비중은 충분히 높은 편이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 제품의 25% 이상을 차지함. 2011년 러시아시장에서 수입비중은 소폭 증가함. 시장의 상당부분은 어류제품이 차지하며 해산물통조림·조제품은 시장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수산강국이지만, 국내 어류·해산물 통조림·조제품시장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임. 러시아인들의 어류·해산물 통조림·조제품 소비는 2011년에 소폭 증가했으나 수산강국의 소비량으로 보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편임. 러시아 주민 1인당 2.29kg 소비에 불과함

(자료: 로스비즈니스컨설팅)

□ 청어 시장동향

○ 생산

- 2011년 러시아의 청어 어획량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450.8천 톤이며, 해마다 청어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1년에 러시아어민들은 태평양청어를 294천 톤 어획했고 그중 174천 톤 수출, 120천 톤은 국내시장으로 유입됨. 2012년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427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200천 톤 수출, 220천 톤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청어(원료)시장의 잠재적인 규모는 약 550-600천으로 집계됨

< 러시아의 청어 어획량 >

(단위: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청어	298,510	349,859	351,794	336,774	347,628	390,634

자료: 연방통계청

< 러시아의 청어 조업 쿼터 >

(단위: 톤)

조업구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쿼터 할당받은 수산물 이용자 수
바렌츠해(북동대서양)	32	0	0	0	0	0
동부사할린(북서태평양)	240.85	198,9	0	0	0	0
서베링해(북서태평양)	5,950.62	5,821	0	0	0	0
서부캄차트카(북서태평양)	18,192.17	37,741.44	0	0	0	0
서부사할린(북서태평양)	1,148.519	936.85	0	0	0	0
카라긴(북서태평양)	1,265	506.5	0	0	0	0
노르웨이(북동대서양)	194,607	210,632.9	201,290	139,880	115,641	45
표트르파블롭스크-코만도로(북서태평양)	95	110	0	0	0	0
연해주(북서태평양)	294.945	7,8	0	0	0	0
북오호츠크해(북서태평양)	174,922.5	224,380,6	0	0	0	0
추코트카구역(북동태평양)	205	0	0	0	0	0
합계	396,953.6	480,335.9	201,290	139,880	115,641	45

자료: 어업모니터링시스템센터

○ 소비

- 청어는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어류 및 어류제품 중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인기 높은 어종임. 최근 5년간 연평균 1인당 청어 소비량은 약 4.1kg임. 게다가 청어 및 청어제품의 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염장, 훈제, 통조림, 조제품, 냉동 형태로 유통 소비되고 있음

○ 가격동향

- 청어는 저가 가격대 범주에 속하며, 최근 10년간 청어 도매가는 거의 인상되지 않은 셈임.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가공업자들은 보관용으로 대량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고 당장 필요한 분량만 소량 구입하고 있음
- 2011년 러시아산 냉동 대서양청어 도매가는 kg당 37-54루블 대에서 변동했으며, 2012년 1-2월간 그 가격은 54루블 이상에서 거래됨. 노르웨이산 청어의 경우, 2011년에 40-55루블/kg 가격대로 거래됨(평균 kg당 49루블).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산 청어 수입이 23.5% 감소한 주요원인이며 국내 도매가와 소매가 인상 원인이기도 함
- 2012년 4월에는 노르웨이산 대서양청어의 모스크바 도매가는 이미 50-67루블/kg(크기와 품질에 따라 상이함), 러시아산 대서양청어 44-58루블/kg, 러시아산 태평양청어 39-42루블/kg에 거래되고 있음

○ 수출입동향

- 러시아산 청어의 주요수입국은 중국이며, 2011년 러시아의 전체 청어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7.9%임(128.7천 톤). 또한 동남아국가들로 공급된 러시아산 청어 수출량은 165천 톤으로 이는 2009년 수치보다 3배 이상 증가함. 중국 다음의 러시아산 냉동청어 주요수입국은 한국이며, 2011년에 한국은 러시아산 냉동청어를 9.2천 톤, 6.5백만 달러 수입함(전년대비 각각 449.77%, 459.93% 증가)
- 이에 비해, 청어와 청어제품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2011년 청어피레트와 조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28.3%(91.7천 톤) 감소함. 냉동청어 수입은 38.2% 감소한 107천 톤으로 집계됨. 수입산 냉동청어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점유율 80%), 아이슬란드(7%), 핀란드(5%)이며, 수입산 청어피레트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79%), 아이슬란드(19%)임
- 동남아국가로의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주로, 노르웨이산) 경향은 러시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09-2011년간 국내청어시장 밸런스는 23.2% 감소한 518천 톤으로 집계됨. 게다가 2009-2011년간 국내청어시장에서 수입산 청어 비중은 48.1%에서 44.9%까지 줄어듦. 또한, 동남

아국가들로의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하여 국내 가공단지에 공급될 원료가 부족해졌고 이에 청어어류 제품 생산도 감소함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러시아의 청어 어획량 증가와 수입 감소추세로 인해 한국산 냉동청어 수입규모도 계속 감소되고 있음. 2011년 러시아의 한국산 냉동청어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32.87% 감소한 699.1천 달러, 38.81% 감소한 897.5톤으로 집계됨

○ 시사점

- 청어 수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감소되면서 러시아시장에서는 곧 청어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그로 인해 국내 가격인상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러시아수산청은 원료공급을 국내로 돌리고 수출을 제어하기 위해 청어수출관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를 고려중임. 한편, 청어수입관세율 제로화 안건은 이번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이미 일단락됨
- 러시아 가공업체들은 크기가 크고 지방이 꽉 찬 청어를 필요로 하고 구입하길 원하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크기가 작고 여윈 청어도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산 청어를 구입하고 있음. 따라서 청어수출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저작권자 ⓒ aT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